

# LS니꼬동제련, 초등학생 위한 과학교실 개최

울산 초등학생 20명에 교육·체험 제공

LS니꼬동제련은 7월 29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울산시 울주군지역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온산읍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진행했다.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는 올해 13번째를 맞았다.

매년 방학 기간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LS사업장이 있는 울산, 동해, 청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공계 전공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태양전지 보트, 자기부상열차, 자기발전 손전등 등 다양한 과학키트를 만들고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



LS니꼬동제련이 7월 29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울산시 울주군지역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과학교실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진행했다. /LS니꼬동제련

이다.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안성 LS미래원에서 비전 캠프도 열렸다. 캠프에서는 지역별 초등학생 180명이 모

여 과학 골든벨, 과학을 담은 팀 빌딩 활동, 진로 체험, 마술쇼, 명사 특강, 각종 레크리에이션으로 함께 소통하고 꿈에 대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협뉴스

# SPC그룹, '2019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6관왕

SPC그룹이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분야 대회인 '2019 레드닷 디자인어워드'서 총 6개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분야는 모두 제품디자인 부문으로 파리바게뜨의 '프레쉬데일리밀크', 파리크라상 '선물류 패키지', 티트라 '선물상자', 배스킨라빈스 '리뉴얼 패키지', 던킨도너츠 '롱비치블루', SPC삼립

'육식본능' 등 6개 제품이다. 파리바게뜨의 우유 제품인 '프레쉬데일리밀크'는 프랑스 삽화가인 '장 줄리앙(Jean Jullien)'과 협업한 패키지로 파리바게뜨 고유의 색채와 장 줄리앙의 자유분방한 삽화가 '빵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우유'라는 제품 특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론칭한 블렌디드티 브랜드 '티트라'의 선물상자도 스텐실 기법으로 재해석한

서체와 로고, 차(茶)마다 개성 있는 패턴을 입힌 패키지를 강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스킨라빈스는 스테파노 지오반노니(Stefano Giovannoni)와 협업한 리뉴얼 패키지 수상했다. 던킨도너츠는 삽화가 '예예 윌러(Yeye Weller)'와 협업한 커피 원두 '롱비치블루' 파우치와 컵 슬립 등으로 수상했다. SPC삼립도 육가공품 간편식 브랜드인 '육식본능'에 시즐 이미지와 코믹스풍의 캐릭터를 적용해 육가공 간편식의 특성을 재치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LCC, 초심으로 돌아가라



기지수첩  
정연우  
(산업부)

“화를 되돌려 복으로 만들고 실패로 인해 공을 이룩한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는 연나라와의 조약을 파기하고 10개성을 점령했다. 그러자 당대의 정치가인 소진(蘇秦)은 제나라 왕을 찾아가 연나라 10개성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면 천하의 중심은 제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나라 왕이 의문을 제기하자 소진이 말하길 연나라에게 10개성을 돌려주지 않으면 연나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맹관계에 있는 강국 진나라의 원한을 사게 될 것이고 반대로 돌려주면 두 나라의 존경을 받아 왕의 호령에 천하가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무리한 영토확장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다. 이에 제왕은 아주 기뻐하며 연나라에 성을 돌려주고, 천금을 풀어 사과를 한 후, 머리를 조아리며 진나라에 형제의 나라가 될 것과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다. 소진의 말대로 제나라는 훗날 진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사자

성어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의 유래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일본여행거부운동으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 중국 측의 신규 노선 취항 거부, 실적 악화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앞서 항공업계는 국내에서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본 노선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여행객 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 중국 노선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측의 거부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LCC들이 노선 증편과 프로모션 이벤트를 연이어 발표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승무원 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티웨이항공의 결정은 항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덕목은 고객 수요 확보가 아닌 고객 안전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항공 여객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나선 것. 이처럼 단순한 노선 증편이 일본 여객 수요 감소와 실적 악화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위기상황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비전을 생각해야 한다. /ywj96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20일 (음 7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48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됨을 명심. 60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을. 7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조심. 84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라.
- 소**  37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49년생 물이 너무 많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61년생 두려워 말고 일을 시작하라. 73년생 친구의 불운이 안타깝다. 85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있는 그대로.
- 호랑이**  38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50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얻은 정보가 큰 이득을 가져온다. 62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74년생 검은 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8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
- 토끼**  39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51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63년생 확실한 복수는 상대를 믿는 것. 7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성실함으로 극복. 87년생 우물에서 송눈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 원숭이**  40년생 기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52년생 자식도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아라. 64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접근 금지. 76년생 더러워진 옷은 세탁하면 된다. 88년생 아랫사람의 충고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 돼지**  41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뚱지 않는다. 53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65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 77년생 서두르면 손해. 89년생 삼재이니 외국 가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계획할 것.
- 말**  42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54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 66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8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조심. 9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행운.
- 양**  43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자. 55년생 유익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67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79년생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관광. 91년생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할 뿐이니 물두해보라.
- 원숭이**  44년생 심신은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56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근심이 더 쌓인다. 68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80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92년생 사랑이 넘치는 날.
- 닭**  4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7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69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라. 81년생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것에 신경. 93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조심.
- 개**  46년생 등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녀도 별 이득이 없다. 58년생 호감이 가는 일거리가 주어진다. 70년생 흉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82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 94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양보.
- 돼지**  47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59년생 무리수를 쓰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 71년생 정제되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 83년생 먼지가 심하니 나에게도 영향이 있다. 95년생 사랑타령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 김상희의 4계

###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

문제가 될 만큼 금전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허망한 꿈을 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탐욕과 욕심이 함께 한다. 시장경제의 합리적 경계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률이나 일확천금을 꿈꾸며 추진하는 일들에 대부분 사기성이 농후한 것인데 자신 만큼은 행운을 기대하며 꿈속의 성을 쌓는 것이다. 사업을 한다며 평생 모은 돈이나 누군가에게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레퍼토리가 비슷하다. 어떤 유명 배우의 모친이 금전문제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인도네시아 광물 채굴 사업권을 따내면 몇 백 억원의 특별용자를 받게 되고 그걸로 그간의 빚도 다 갚을 수 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항상 즐겨 나오는 목록들이 있다. 이런 황당한 얘기들의 공통점은 사업터전이 국내가 아닌 국외라 하는 점이다. 쉽게 가서 현장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현장을 찾아간다 해도 몇몇 사람 짜고 여기가 사업장이네 하면서 눈가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필자의 신도중 M씨도 칠레에서 한다는 사금 채취사업에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일 년 이내에 두 배 이상의 수익률을 장담하며 하도 믿는 사람이 열심히 권유하는 지라 칠레 까지 가서 답사를 했다. 실제로 현장이라 하는 곳은 의심할 만한 점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현장은 실제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니고 그 나라의 브로커와 짜고 보여준 현장이었다. 당시 M씨의 세운에 망신살과 곧 바뀔 대운이 겁재(劫災)운으로 펼쳐졌는데 운은 어쩔 수 없는지 현장을 다녀와 보니 믿을 만하다며 십 여년 전 돈으로 일억 원을 투자했다. 명퇴금으로 받은 돈을 거의 날린 것이다. 화병을 얻은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6		4	
9		7	8	5	2
	2		4		7
			6	3	4
	9		3		1
1		6	2		
	7			6	9
3	4		1	2	8
	1			8	3

	3	6		4		7	1	
2				1				5
1			2		7			8
		3				5		
	4		5			6		
	5		7	6	2			4
	6						7	
	7		6	3	1			5
5		4			8			6

**스도쿠 정답**

9	8	1	8	7	2	6	1	5
8	5	2	6	1	4	7	9	3
1	6	7	9	5	8	3	4	2
4	8	6	7	2	5	9	3	1
5	1	9	4	8	7	6	2	3
7	2	3	1	9	6	5	8	4
3	4	8	5	6	7	1	2	9
2	9	5	8	1	4	7	6	3
6	7	1	2	3	9	8	5	4

문제 제공 = **보뉴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69호